****

**그 빛이 계속 비추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나탈리 피사르칙은 후에 그녀가 봉사하는 교회인 뉴저지주 분튼의 제일 장로 교회 주일 예배에서 그녀가 그곳에 있었음을 간증했다. 그녀가 고통을 끝내려 했던 아주 어두웠던 곳. 스스로의 목숨을 내려 놓으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빛이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한 줄기 따스한 햇빛이 내 얼굴을 강렬히 비추었어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깨달았던 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느냐? 너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탈리의 혼돈의 자리에 빛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 비추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서쪽에 위치한 브렌트우드 장로교회 신자인 탐 일랜더는 남부 국경에서 직접 본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 "저는 빈곤, 폭력, 또는 교육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비참한 삶에서 탈출하는 데 절실한 멕시코와 중미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평화 증진 여행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4일간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이해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 비추고 있다.*

나다 라파엘의 세계는 폭발했다. 치명적인 폭발로 베이루트 항구 지역은 붕괴되어 수백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 당했으며, 대략 삼십만 명의 사람이 집을 잃었다. 레바논 태생의 예술가인 나다는 "후유증으로 내몸 뼈마디마다 폭발의 후유증을 느낍니다. 나는 예술로 이걸 보여 주고 싶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 비추고 있다.*

세 가지 이야기 서로 매우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빛 - 하나님의 평화 - 는 어느 시기, 어떤 방식으로든 나탈리와 탐, 그리고 나다의 삶 속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그 빛은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에의 기부를 통해 교회 내 우리를 다시 비춘다. 이 헌금은 사역의 힘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투쟁의 근원과 치유와 온전함을 향한 노력을 조명하는 빛이라고 할 수 있다. 헌금의 절반은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나다같은 예술가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레바논의 나바드(NABAD)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사역에 기여하도록 장로교 총회 선교국에 전달되며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준다. 헌금의 25%는 지역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사업을 위해 교회가 보유한다. 나탈리의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점차 증가하는 정신 건강과 자살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금의 일부를 사용한다. 또한, 헌금의 25%는 탐이 남부 국경 지대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은 지역적 차원의 평화 증진사업에 사용되도록 중간공의회에 지급된다. 우리 자신의 교회는 우리에게 배분된 헌금을 사용해 왔다 (무얼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은 왜 여러분 교회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까).

기부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언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추게 된다. 우리 모두 조금씩 기부하면 많은 금액이 된다. 적극적으로 기부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안에, 평화의 빛, 빛의 세계를 비추소서. 언제나, 모든 면에 평화가 깃들일 때까지 우리의 입과 가슴과 손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